

#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2020 SUMMER

vol.137



## 나를 찾는 아름다운 방법, 일기日記

어린 시절, 방학이면 일기를 썼어요. 감정이나 느낌을 쓰기보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실 위주의 기록이던 옛날의 그 일기는 정직하고 담백했죠. 하루하루의 기록이자 반성이고, 깨달음이나 자아성찰의 수단이어야 하는 일기가 해 질 녘까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땀 흘려 놀기 바쁜 아이에게는 그저 하품 나오는 숙제에 불과했어요. 개학이 다가오면 폭풍우 몰아치듯 한꺼번에 쓰던 기억이 납니다. 철학자 아미엘은 "일기는 인간의 위안이자 치유, 영원과 내면의 대화, 펜을 든 명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에게 일기는 '나를 아는 방법'이자 '나에게 쓰는 편지'가 될 것 같아요. 울여름, 일기를 써 봐요. '참 잘했어요'도 장 대신 스스로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게 될 거예요.

## 뜨거운 여름날, 얼음 가득한 한 잔의 물

'아무리 더워도 덥다고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땀을 많이 흘리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해 아래 피어나는 삶의 기쁨 속에 여름을 더욱 사랑하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여름단상>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여름입니다. 여름날 한낮의 거리를 걷는 다거나, 실외활동을 할 때, 짜증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지만 그럴 때마다 이 시를 읊조려보기로 해요.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얼음 가득한 물 한 잔의 소박함에도 크게 시원해질 것 같아요.





인하대병원보 2020년 여름호(통권 제137호)  
 발행일 2020년 6월 1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Vol.137  
 2020 SUMMER

## CONTENTS

- 2 찰나의 순간      나를 찾는 아름다운 방법, 일기日記  
 뜨거운 여름날, 얼음 가득한 한 잔의 물

### SPECIAL THEME 음악에 마음을 놓다

- 8 SPECIAL THEME 01      나의 플레이리스트(PLAYLIST)  
 10 SPECIAL THEME 02      음악이 좋다, 왜 좋을까  
 14 SPECIAL THEME 03      음악이 흐르는 공간의 발견  
 18 SPECIAL THEME 04      한국 대중음악이 새겨 넣은 기록들

### 사람과 건강

- 22 건강 읽기      알쏭달쏭한 온열질환의 모든 것  
 26 인하포커스      혈액종양내과  
 32 계절밥상      컬러풀 옥수수 디저트  
 34 콧노래 여행      자유를 그리는 마음, 크레타섬에서  
 40 친절한 인하인      친절한 인하인을 소개합니다

### 인하, 사람

- 42 인하가 만난 사람      감염관리실  
 48 인하라운지      유타대학병원·GCF와 화상회의 열다  
 50 인하이슈      어버이날 맞이 '고객 섬김 활동'  
 52 특특 약물상담      약제내성결핵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6 진료안내표



## 음악에 마음을 놓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지만 아주 가끔은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함이 엄습할 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 때, 숨 가쁜 일상 속에서 나를 잃은 것 같을 때... 이 모든 순간에 거짓말처럼 위로가 되는 음악 한 곡이 있습니다. 한 곡 듣고 나면 다른 어떤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경험, 모두 있을 겁니다. 음악을 두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악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리듬을 따라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부드럽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숨 쉴 곳을 찾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떠날 수도 없는 현실, 이때 음악을 듣는 겁니다. 혼자만의 공간이어도 좋고, 어렵다면 이어폰 속 세상으로 나만의 음악 여행을 잠깐 다녀오는 건 어때요. 그리고 나면 조금 전 스트레스가 연기처럼 흔적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지코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라고 했잖아요. 이 여름, 음악을 넉넉하게 틀어 봐요.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지날 수 있을 거예요.





## 나의 플레이리스트(Playlist)

기억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말하자면 내게 처음으로 음악을 들려준 친구는 카세트플레이어다. 이후에는 워크맨이, 이어 CD플레이어가 그리고 MP3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몇 해 전, 제법 몸값이 나가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장만했다. 꽤 오래 쇼핑리스트에 담아둔 항목이다. 제 아무리 막귀(이어폰, 헤드셋 등 음향기기로 노래를 감상할 때 음질이 좋고 나뻐 잘 구별 못하는 귀를 말한다)여도 우아하고, 고상하게 음악을 듣고 싶은 오랜 바람의 실현이었다.

요즘 들어 남들과 같은 방식,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음악 듣기를 거부하며 '비닐(LP)'에 입문하는 이들이 많다. 다시 LP가 인기라지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시대다. 음악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방법을 속속 바꾸며 나의 귀로 살포시 흘러들고 있다.

학창시절엔 주로 대중음악을 들었다. 앨범 재킷(Album jacket)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듣고 또 들으며 가사를 외었다. 친구와 버스에 나란히 앉아 이어폰을 하나씩 나누어 끼고 유행가는 물론 감상까지 공유했던 시절이 있었고, 사연과 함께 손으로 끼적끼적 신청곡을 적어 보냈는데, 라디오에서 DJ 오빠가 사연을 읽어준 후 신청곡이 흘러나오던 순간의 짜릿함을 여전히 기억한다.

요즘 나의 플레이리스트(Playlist)는 제법 다양하고 화려하다. 뮤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속 내 음악이라는 카테고리에는 상황과 기분에 맞게 귓속에 흘러들기 원하는 음악이 주제별로 담겨 있다. 출근길과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다른데, 출근길에는 조금 경쾌한 음악을 주로 듣고, 저녁 퇴근길에는 인디음악이나 감성 발라드, 혹은 재즈(jazz)를 듣는다. 운동을 할 때는 '온라인 탐골가요'를 들어야 흥이 차오르고 동작에 날개를 달 수 있다. 각자의 폴더에서 얌전히 계절을 기다리는 음악도 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그룹 쿨(Cool)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 윤종신의 '팔빙수'나 악동뮤지션의 '콩떡빙수'도 여름용 폴더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우쿨렐레 연주는 마치 여름 악기인 듯 그 소리가 청량하고 시원해 여름이면 자주 찾아 듣는다.

원고를 쓸 때처럼 집중해야 할 때도 음악을 틀어두는 편이다. 물론 클래식이나 가사가 들리지 않는 팝이 대부분이다.

이도우 작가는 산문집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에서 밤에 쓴 글에서는 '춧불냄새'가 난다는 말을 했는데, 주로 밤에 원고를 쓰는 일이 많은 나는 글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기를 바란다.

내게 음악이란 무엇일까, 새삼 생각해본다. '혼자 하고 싶은 것.' 스트레스가 왕창 쌓였을 때 수다와 쇼핑, 맛있는 것 먹기, 예능 프로그램 보기, 산책, 음악 듣기 등으로 탈출한다. 그 가운데 먹기, 사기, 놀기, 보기, 걷기는 같이 해야 더 좋다. 음악 감상만큼은 예외다. 혼자 들어도 외롭거나 섭섭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악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혼자 듣고 싶다.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저마다 느끼는 감은 다르니까. 각자 몫의 감상이 있으니까.

10여 년 전, 경주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배차 간격이 1시간은 족히 되는 버스, 쉽게 오지 않은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 나와 함께해준 노래 한 곡 덕분에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아르코(Arco)의 퍼펙트 월드(Perfect World)라는 노래에 흠뻑 빠져 있었다.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꿈 많던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음악은 나를 청춘으로 되돌려 경주에 데려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의류 매장으로 데려다놓는다. 코로나가 만든 전혀 새로운 세상 탓에 쉽게 여행조차 떠나지 못하는 내가 여행을 하는 새로운 방법, 음악이다.



# 음악이 좋다, 왜 좋을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음악은 일상 깊숙이 들어와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의 청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악에 쉽게 노출된다. 평소 습관처럼 듣고 흥얼거리는 음악은 무심코 흘러버리기 쉽지만 사실 신체·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에 관여하며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전보다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음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다.

## 뇌를 건강하게 한다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쌓인 스트레스는 흡사 '독약'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음악 감상이 효과적이다. 영국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법 중 음악 감상은 61%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캔자스대학 의료센터의 브렌다 한나-플래디 박사팀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나이를 먹을수록 약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은 뇌가 더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기억력과 두뇌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음악을 듣는 것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음악은 음악을 지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음악과 일체되는 직접적 신체 변화를 넘어 뇌의 정보처리와 인지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정서적 경험으로 이어진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마음이 진정된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 싶을 때,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위축되고 몸과 마음이 심연까지 가라앉는 기분이 들 때 음악을 듣자.

## 허리둘레를 결정한다

날씬한 몸을 갖고 싶다면 음악을 듣자. 2012년 미국 코넬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조명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식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칼로리 섭취가 18% 적었다고 한다. 반면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접한 손님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사우스플로리다대학 마케팅 교수 디페안 비스와스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다. 비스와스 교수는 스톡홀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며칠에 걸쳐 55~70dB(데시벨)에 해당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틀었다.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들은 손님은 그렇지 않은 손님에 비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20% 더 많았다고 한다. 비스와스 교수는 “음량은 심장 박동과 흥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자기통제력’은 록 음악보다는 재즈 음악을 들을 때 발휘됐다. 손님들은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음식이 스스로에게 더 좋을지 차분히 결정을 내렸다. 반면 록 음악을 들은 손님들은 빵 위에 올라간 고기, 치즈, 감자튀김, 맥주 등 비만하기 쉬운 음식을 원했다.



## 마음을 치유하는 뮤직테라피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치료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정서 장애를 가진 사람, 마비 환자, 애착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아동, 부적응 청소년, 알츠하이머 환자, 우울증,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등에게 뮤직테라피가 적합하다.





### 수술 불안감과 통증을 줄여준다

의학드라마를 보면 종종 의사가 수술실에 음악을 틀어놓고 집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의사가 수술 중 음악을 듣기 시작한 역사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의사였던 에반 케인이 고요한 분위기에서 환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수술실에 축음기를 가져다 놓았다는 기록이 있다. 일부 의료진은 음악이 오히려 집중력을 흐뜨리고 수술실 내부에서 오가는 대화를 방해한다고 하지만, 템포가 느린 음악을 적절한 음량으로 유지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말하는 의료진이 대부분이다.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BMJ)」은 영국 웨일스대학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술시간의 62~72% 동안에는 음악이 재생되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약 80%는

“수술실 음악은 수술을 함께 진행하는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협력을 높이고 긴장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수술실에서 음악은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2009년 환자 3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술 중 편안한 느낌의 멜로디가 흐르면 마취 전 환자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심장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같은 효과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유지된다고 한다. 음악 듣기는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서던메디컬저널(Southern Medical Jour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 쪽이 진통제를 사용하는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유타대학교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정 강도의 전기충격을 가하는 동시에 다양한 멜로디의 음악을 들려준 결과, 음악을 듣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증이 17% 감소했다.

음악은 심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이탈리아 파비아대학의 루시아노 베르나르디 교수팀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환자는 단지 쉬고 있던 환자보다 수술 뒤 불안감이나 통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 면역력이 올라간다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이다. 이런 때 음악 듣기가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내추럴킬러(NK) 세포라고 불리는 림프구가 있는데, 이는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다. 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NK세포의 활동력이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음악을 들으면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로니 엔크 박사팀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기분을 고양해주는 음악을 50분간 들으면 체내 항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잘 잔다

잠은 재충전을 위한 처방전이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잠 못 드는 현대인에게 음악은 수면제 같은 효과를 준다. 물론 음악과 수면의 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유튜브’만 봐도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유튜브에 ‘수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면 유도 음악, 수면 음악, 수면 클래식 등 음악과 관련한 연관검색어가 등장한다.

‘자율감각 쾌락반응’이라고 부르는 사운드,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은 자극을 최소화한 소리다.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흥분·각성 모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휴식이나 수면 모드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ASMR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자율신경을 특정 사운드로 자극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유도해 수면과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여름철, 열대야는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 ASMR이나 조용한 수면 유도 음악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올바른 음악 감상법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 먼저 음악을 듣기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한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몇 차례 심호흡을 해 몸을 안정시킨다. 볼륨은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듣기 편한 크기로 조절한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집중해 듣는다. 음악을 다 듣고 심호흡으로 몸을 안정한 후 서서히 움직인다. 기급적 좋은 음질의 음반, 음향기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음악이 흐르는 공간의 발견

이 세상에 나를 위한 공간이 조금도 없어 보일 때도 음악을 듣는 순간, 그 공간만큼은 나를 포근하게 품어준다. '음악을 듣는' 행위는 단지 행위를 넘어 몸과 마음에 안정과 치유를 준다. 오늘 나에게 치유의 선을 들려주자. 파주 헤이리에 위치한 '카메라타'와 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풍월당'을 찾았다.



##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선율, 카메라타

우리는 종종 공연장을 찾아 라이브로 음악을 듣길 원한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2퍼센트 때문일까? 또 가끔은 매끄러운 음원보다 LP와 턴테이블, 진공관 앰프, 오래된 스피커들이 건네는 투박한 선율이 무척스럽다. 추억을 소환하는 아날로그의 묘한 매력 덕분이다. 경기 파주 헤이리마을에는 황인용 아나운서가 2004년 문을 연 음악 감상실 '카메라타'가 있다. 황인용 아나운서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황인용의 영팜스>, <그대의 음악실> 등 1970~8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를 맡으며 음악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다고 한다. 당시 수집한 1920년대 오디오와 1만5천 장 넘는 LP가 카메라타의 시작이었다.

카메라타는 음악이 흐르고 빛이 아롱거리는 공간이다. 정오 직전에 찾으면 기둥 없이 뿔뿔 뚫린 3층 높이의 내부 공간 벽면으로 빛이 흘러들어온다. 빛은 공간을 가득 채운 선율과 기분 좋게 어우러진다. 벽은 차가운 질감의 콘크리트지만 천장의 주요 부분은 나무로, 양쪽 끝은 빛이 잘 들어오는 통유리로 마감한 덕분이다. 카메라타의 건축물은 2004년 한국건축가협회와 미국건축가협회 건축상을 수상했다.

카메라타에서는 입장료 만 원을 내면 차 한 잔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 주말에는 실내악 연주회가 열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토요일 오후 7시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6월부터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되었다. 클래식 음악을 신중해서 들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신청곡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탈리아어로 '작은 방' 혹은 '동호인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카메라타. 르네상스 전성기였던 16세기 말 피렌체의 예술후원자 조반니 데 바르디 백작의 살롱에 모였던 예술가들의 소그룹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바로크 음악 문화의 한 축인 오페라 형식을 처음 고안해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뮤직스페이스 카메라타도 콘크리트 벽 '카메라타 더 월'에서 늘 전시를 진행해 미술 작품 감상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오래도록 카메라타는 음악과 미술, 문화예술 장르가 조우해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만남의 장으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문의 031-957-3369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3  
이용시간 평일 오전 11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10시  
인스타그램 @musicpacecamerata







### 도심에 올리는 클래식 선율, 풍월당

서울 강남, 그것도 낮밤 할 것 없이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풍월당은 이곳에서 쇼팽을 하고, 유희만 즐길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좋다”고 말한다. 2003년 서울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문을 연 풍월당은 클래식 음반 매장과 예술 교육 아카데미, 카페 로젠카발리에를 운영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아카데미와 로젠카발리에에는 잠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지만 음반 매장만 찾아도 인심 좋게 내어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듣는 시간을 향유할 수 있다. 음반 매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 음반과 풍월당이 추천하는 음반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매장에서는 음반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 관련 서적과 굿즈도 판매한다. 선율뿐 아니라 텍스트로도 쇼팽, 베토벤 등 거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19세기 말, 예술의 산실이었던 빈 카페 콘셉트로 만든 카페 로젠카발리에에는, 유럽 예술의 절정을 이루었던 빈의 카페 정신을 닮고자 만든 곳으로,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고, 사유를 하고, 음악을 만나는 곳이다. 카페 로젠카발리에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에서 따온 이름이다.

사실 풍월당은 박종호 대표의 평생에 걸친 음악 사랑과 열정의 공간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그는 클래식 음악에 매료되어 풍월당을 설립했고, 여기에 클래식 전문 강의, 예술 책 집필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종호 대표의 바람이 곧 풍월당의 바람이다. 풍월당은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음악을 통해 감동과 기쁨, 위안을 주는 공간, 올바른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공론장이 되기를 꿈꾼다.

문의 음반 매장 02-512-2222, 아카데미 02-512-2356 위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39, 45층, 이용시간 12시~19시(코로나19 여파로 단축, 일요일 휴무) [인스타그램 @pungwoldang](#)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구석 콘서트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연계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정된 모든 공연이 취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아티스트들은 굴하지 않고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이루마는 지난 5월 7일과 9일 <페이스북 x WHO '코로나19' 기부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다. NCT 127은 '비욘드 디 오리진(Beyond the Origin)'이라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며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대형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방방콘 The Live'는 방탄소년단이 새롭게 준비한 실시간 라이브 공연이다. 6월 14일 오후 6시부터 약 90분 동안 유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펼쳐진다.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우리 모두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유튜브 음악 채널, 온라인 콘서트 등에 시선을 돌리는 것도 코로나19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음악으로 치유 받아야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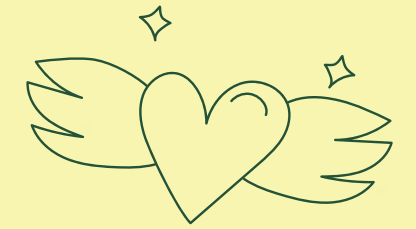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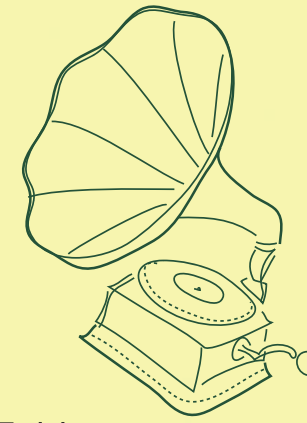


## 한국 대중음악이 새겨 넣은 기록들

음악이 빠진 삶은 상상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래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였다. 노래하는 실력자와 오디션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노래방 문화가 발달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중음악 관련 흥미로운 기록을 살펴보자.



Summe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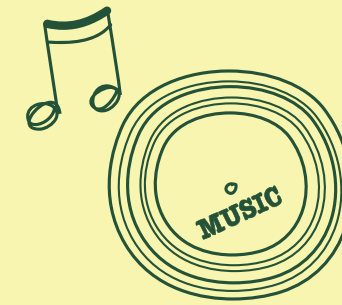


### 고종 24년, 기계에 목소리를 담다

우리나라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기계에 담긴 사례는 고종 24년인 1887년, 선교사 알렌(N.H.Allen)이 녹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는 가격과 위험성 면에서 유성기가 아닌 뮤직박스에 소리를 담은 것으로 추정한다. 공식적인 국내 음반역사는 1907년 미국 콜롬비아레코드에서 'Korean Song'으로 제작한 유성기 음반에서 시작된다. '소리가 나는 마술 상자'로 불렸던 유성기 음반(SP, Standard playing)은 10인치 크기로 앞뒷면에 한 곡씩을 담았는데, 간혹 7인치 형태의 음반도 제작했다. 1908년 미국 빅터레코드 역시 한국인의 소리를 담은 음반을 제작했는데, 이동백의 판소리 '적벽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초창기 음반에 참여한 이들은 권번 기생이나 국악을 하던 여성을 중심으로 국악 장르가 주를 이뤘다.

### 노랫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

'한국 가요 100년'을 관통한 키워드는 '사랑'이다.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성우 교수는 저서 <노래의 언어>(어크로스)에서 우리 가요 2만여 곡 중 '사랑'은 제목에 1608회, 가사에 4만 3583회 등장해 명사(名詞)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말(2만1960회), 3위는 사람(1만9460회), 4위는 눈물(1만6771회), 5위는 때(1만6113회)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절은 봄(1572회), 겨울(1281회), 여름(1001회), 가을(541회) 순이다. 도시는 서울(606회)이 가장 많았고, 부산(203회), 대구(63회), 인천(59회), 여수(47회)가 뒤를 이었다.



### 한국 대중음악은 100여 년의 역사

'대중음악'이란 단어는 음악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연주하고 들으며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음악은 시대를 아우르는 유행 요소와 유희적 오락성, 그리고 상업성을 지닌다. 대중음악의 토대는 구전으로만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녹음 기술에 의해 저장과 소장의 개념이 생기면서 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최초 '유행가'라는 용어로 지칭되던 한국대중음악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각 시대별로 시대의 거울과 같던 한국 대중음악은 정치, 사회, 경제적 흐름에 맞추거나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해왔다.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분분한데, 최초의 대중가요는 일동축음기 주식회사에서 1926년에 발표한 윤심덕의 '사의 찬미'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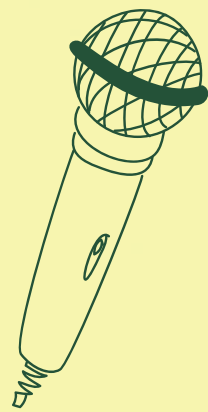
### 대한민국 역대 음반 판매량 12위 모두 BTS

대한민국 역대 음반 판매량 1·2위 모두 방탄소년단이 차지했다. 1위는 2020년 발매한 <맵 오브 더 소울 : 7>이 총 417만 장 판매됐고, 2위는 2019년 발매한 <맵 오브 더 소울 : 페르소나>가 총 377만 장 판매됐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앨범 누적 판매량 2032만 장을 기록했다. 데뷔 7년 만에 14개 앨범으로 이뤄낸 성과다. 그뿐만 아니라 <맵 오브 더 소울 : 7>에 실린 타이틀곡 '온'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4위까지 올랐다. 이는 방탄소년단 자체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K팝 그룹으로도 최고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이 '핫 100' 10위권에 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8위, '페이크 러브'(FAKE LOVE)는 10위에 랭크되었다. 빌보드 '핫 100'은 노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라디오 방송횟수,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 100' 10위권에 든 곡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 가수가 됐다. 싸이는 '강남스타일'(2위)과 '젠틀맨'(5위) 2곡을 '핫 100' 10위권에 올려놨다. '강남스타일'의 '핫 100' 순위는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이다.



### 최초의 노래방은 '로얄전자오락실'

한국 최초의 노래방은 부산 동아대학교 앞 '로얄전자오락실'이다. 1991년 4월의 일이다. 당시 노래방은 일본 가라오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첫 노래방의 노래반주기는 지금과 형태가 비슷했지만, 동전을 넣고 1곡씩만 부를 수 있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동전노래방'이 노래방의 원조인 셈. 기계와 조명이 설치되고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노래방이 생긴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노래방 열풍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해 1년 만에 1만 개를 넘었다. 이후 노래방은 회식에서 빠지지 않는 코스가 됐고, 우리나라 특유의 '노래방 문화'를 형성했다.



# PEOPLE

사람과 건강

## 건강한 삶을 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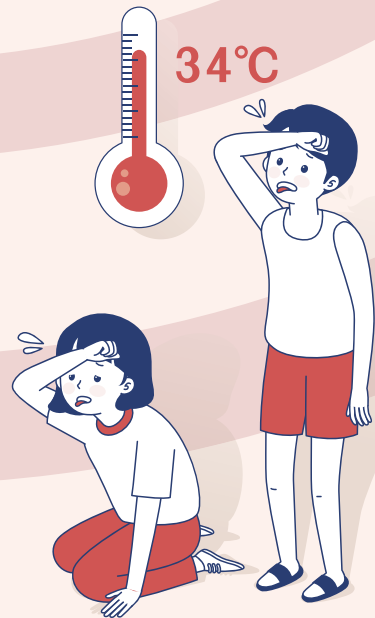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제안합니다.



### 열사병과 일사병

# 알쏭달쏭한 온열질환의 모든 것

세계 기상학자들은 올여름을 두고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름철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외부 활동을 하면 자칫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극한의 더위가 인체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여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승열 교수에게 듣는 슬기로운 온열질환 대처법.



### 온열질환 대표주자, 열사병과 일사병

인체는 외부 온도가 변하더라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떨거나 땀을 흘림으로써 열을 생성하거나 소실한다. 하지만 고온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심한 운동, 작업 등으로 인체의 열생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열을 발산하는 작용이 불충분해지면 온열질환이 발생한다. 열사병과 일사병(열부종, 열발진,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이 대표적이다.

열사병과 일사병은 어떻게 다를까. 두 질환이 단어는 비슷하지만 임상양상이나 예후는 완전히 다르다. 먼저 전형적인 열사병은 혹서기에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생긴다. 열조절체계가 무너져서 중심체온이 40℃ 이상으로 상승하지만 땀이 나지 않아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며,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의식을 잃는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어 21~63%의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질환이다.

일사병은 보통 강한 햇빛이나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된 채 무리한 신체활동을 지속할 때 나타난다. 손과 발 등 피부혈관확장(열부종), 땀샘의 염증으로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이 생기는 증상(열발진, 일명 팍피), 많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근육경련이나 통증(열경련), 현기증, 오심, 구토, 무기력(열피로), 실신(열실신) 등을 통칭한다.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승열 교수는 “일사병이 열사병과 다른 점은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으며,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면서 땀 분비가 있고, 의식 소실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 노인이나 어린이는 특히 조심해야

2011년부터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이 협력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1,841명 중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4,526명 중 48명이 사망한 것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2011년 감시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승열 교수는 “특히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의 90%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온열질환의 전체 환자 수는 활동량이 왕성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고위험군은 노인이나 어린이다. 열 발산이 감소해 생기는 온열질환은 탈수 상태이거나 피부 혈류와 발한 속도가 줄어 심혈관계와 체온 조절이상이 발생하는데, 노인이나 어린이가 이러한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신승열 교수는 “노인층의 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는데, 이유는 심혈관계 등 기저질환이 많고 거동이 불편해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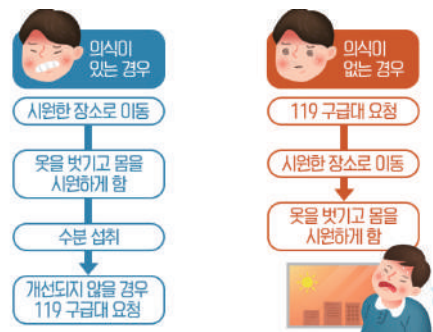
###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으면

온열질환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장딴지, 허벅지, 어깨 부위의 국소적 경련이나 통증, 피로,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토, 실신 등이다. 따라서 고온에 노출된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열경련은 전해질이 부족할 때 발생하므로 이온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열피로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줘야 한다. 신승열 교수는 “열사병이 의심되면 체온을 최대한 빨리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시 더운 환경에서 벗어나 옷을 벗기고 환자 신체에 물을 뿌리면서 바람을 쐬는 것이 이상적인 냉각요법이다. 젖은 수건 혹은 시트를 덮어 주거나 얼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병원에서 더위에 노출된 병력이 확인되고 체온이 높거나 의식 변화가 있을 경우, 말초 장기손상 여부나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혈액검사, 흉부 X선, 심전도,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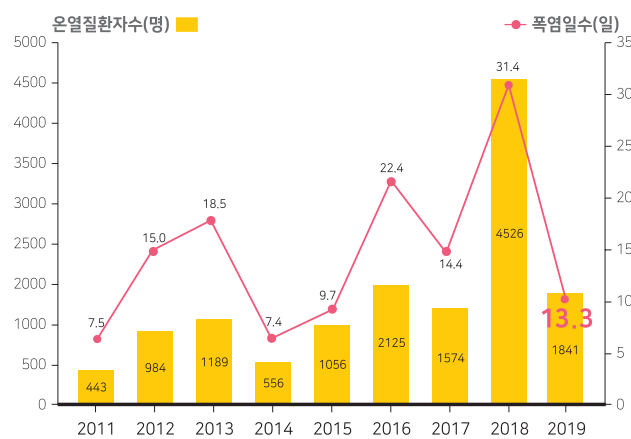
치료법은 임상양상에 따라 나뉜다. 먼저 열실신은 실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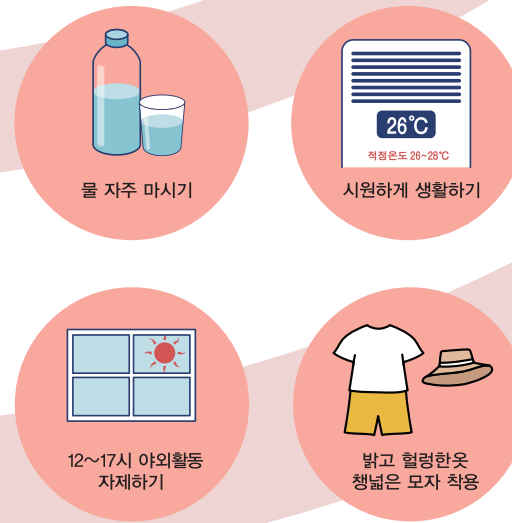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본부

### 연도별 온열질환자수 및 폭염일수



출처: 질병관리본부

### 폭염시 건강관리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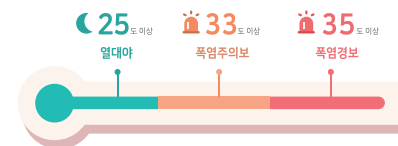
### 온열질환 발생 막는 생활수칙

폭염 상황에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 이온음료, 과일주스 등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고, 하루 동안 여러 번 시원한 물을 얼굴과 목 뒷부분에 뿌려주면 좋다.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12시~17시 사이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할 때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입는 것이 좋다. 또한 폭염 때는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승열 교수는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옷을 풀고 너무 차갑지 않은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린 후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환자에게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한다. 빨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폭염 관련 건강영향 및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신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대사성,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낙상에 의한 손상 여부를 평가한다. 보통 더위를 피해 안정을 취하면 스스로 회복된다.

열경련은 보통 저나트륨혈증 때문에 발생하므로 전해질 부족 여부 검사가 필요하며, 휴식을 취하고 수액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열피로는 수분보충이 원활하지 않아 수분이 부족해 발생하거나 저농도 수액만으로도 수분을 보충해 전해질이 부족해 나타나므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치료의 핵심이다.

열사병은 신속한 냉각과 적극적인 기관계 기능의 지원이 치료 목표다. 보통 해열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냉각법을 사용한다. 물리적 냉각법 중에는 약 15℃ 찬물을 피부에 분무하면서 45℃의 바람을 쐬이게 하는 증발냉각법(evaporative cooling)이 최대 효과를 보인다. 머리를 제외한 몸통을 얼음물에 담그는 침수냉각법(immersion method)도 효과적이거나 모니터 연결과 소생치료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 외에 냉각담요(cooling blanket), 얼음팩, 찬수액의 정맥주사 등 보조 치료 요법이 있다.



**신승열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심폐소생술과 임상술기를 전문 분야로 진료하고 있다. 신승열 교수는 “다양한 증상과 외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군이 대부분인 만큼 아무래도 응급실은 번잡하고 소란스럽다. 하지만 언젠가는 빠르고, 조용한 응급실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신승열 교수는 다가올 여름에 충분한 수분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가져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당부했다.

암 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과 같은 종양부터 백혈병, 악성림프종, 항암치료까지 아우르는 진료과다. 오랜 시간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Think Safety Build Value+ 안전에 가치를 더하다

안전에 향한 생각이 바른 가치를 만든다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교수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교수

혈액종양내과  
하혜림 교수

혈액종양내과  
김진철 교수

###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는 암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학 분야다. 혈액질환을 다루는 혈액내과와 고형 종양을 다루는 종양내과로 나뉜다.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998년 3명의 전문의로 진료를 시작했다. 당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외래 항암치료 주사실을 개설해 입원하지 않고도 골수 검사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식 확률 5%로 수술 성공률이 낮은 부모자식 간 조혈모세포이식에 성공하고, 국내에서는 드문 혈액질환인 지중해빈혈 환자를 외국에서 유치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치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며 인천 지역 암 치료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현재 혈액종양내과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두경부암, 췌담도암, 비뇨기암, 뇌종양 및 부인암 등 각종 암의 내과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주된 영역은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이다. 인하대병원 혈액내과는 급성 및 만성 백혈병을 비롯해 골수이형성증후군, 림프종, 다발성골수종의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다. 그밖에 여러 가지 빈혈과 혈전, 출혈성 질환 등 다양한 혈액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종양내과의 주 영역은 항암화학요법이며 항암제를 사용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골수 억제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인하대병원은 혈액내과와 종양내과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두 과를 합쳐 운영 중이다.

혈액종양내과는 혈액질환과 암질환의 진료뿐만 아니라 기초, 임상 연구 및 암 예방교육, 암 환자교육 또한 담당한다.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이자 진료지원 2실장인 이문희 교수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내과 과정을 수료하고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각 분야에서 전문 교육과 경험을 쌓은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암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며, 의료진끼리 긴밀하게 소통하는 다각적 진료를 통해 환자 치료에 최적의 결과를 내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원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한다. 암센터에서는 항암치료를 받는 모든 암환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및 교육을 하고 매일 당일 진료를 진행한다.

이문희 교수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998년 설립 이후 지난 23년간 암 치료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별 맞춤치료와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희망을 주는 암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Mini Interview

유방암, 소화기암, 부인과암 전문

### 이문희 교수

이문희 교수는 인하대병원에 혈액종양내과가 생겨나던 1998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인하대병원과 함께하고 있다. 처음에는 고형 암환자와 함께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혈액암 환자도 진료했지만 요즘에는 주로 유방암, 소화기암, 부인과암, 육종 및 희귀질환 환자를 진료한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6개월간의 의료과업, 2015년 메르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COVID-19)까지 격변하는 의료 현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암환자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기에 이 교수를 비롯한 혈액종양내과 의료진들은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다. 이문희 교수는 혈액종양내과 과장이자 암골수이식센터장,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진료지원 2실장이라는 다양한 업무와 더불어 유방암, 췌장암 등에 활발한 임상연구를 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그 동안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선정해 등재하는 「마르퀴스 후즈후(The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이 교수는 ‘내가 환자라면, 저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진료에 임한다.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다. “암 치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 가족, 주치의가 함께 뛰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말과 치료법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힘들 때 끌어주고 잡아주면서 목표를 향해 같이 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소화기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전문 임주한 교수



‘고형암’ 또는 ‘고형 종양’이라 불리는 암은 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하는 질환 중 하나다. 고형 종양은 간이나 위 등 신체 장기에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임주한 교수는 주로 구강, 인두, 후두 등에 생기는 두경부암과 비뇨기암, 소화기암과 같은 고형암의 항암치료를 맡고 있다.

임주한 교수는 진료를 볼 때 항상 환자를 우선에 두려고 노력한다. “전공의 때 자주 보던 『해리슨의 내과학 원리』라는 교과서 서문에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자 책임, 그리고 의무’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도우려고 한다.”

임 교수가 진료를 보는 환자는 병기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늘 환자를 우선하는 진료에 힘쓴다. “환자 중에 20대에 암을 진단 받은 청년이 있었다. 병기가 높은 암이었지만 환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항암치료를 진행해 암을 완치했다. 지금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그는 기초 연구 임상 연구에도 힘쓴다.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임 교수는 지난 2017년 그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명 등재 사전 「마르퀴스 후즈후(The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다. “지난 수년간 인원 부족으로 진료가 많은 탓에 하고 싶은 연구나 교육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기쁘게도 올해 새로운 교수들이 혈액종양내과에 임용되면서 함께 다양한 임상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혈액암, 조혈모세포이식, 폐암, 흉선암 **조진현** 교수



위암, 간암, 폐암처럼 신체 장기 외에 림프절이나 혈액처럼 우리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혈액 속에 암세포가 생기기도 한다. 신체 장기에 암 종양이 붙어 있는 고형 암은 수술로 절제할 수 있지만 혈액암처럼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면 치료법이 달라진다. 조진현 교수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한 혈액학 전반과 흉부 종양학을 전문으로 진료한다.

조진현 교수는 “혈액종양내과는 특히 발전과 변화가 빠른 의학 분야라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최신 지식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실제 임상 영역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임상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는 지난 2019년 미국임상암학회(ASCO)에서 흉선암 임상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께 최대한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으려고 노력한다. 환자 입장에 공감해 환자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힘든 길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입원해 수많은 검사를 하고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인하대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었다. 다행히 인하대병원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고 늦지 않게 항암 치료를 해 건강을 되찾았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진을 믿고 암을 이겨낸 환자와 가족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조진현 교수는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한다. 식단을 골고루 잘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술과 담배처럼 누구에게나 해로운 것은 피하라는 것. “특별히 건강을 좋게 하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생활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며,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에 힘쓰라고 조언한다. “혈액학 분야에서 ‘제4세대 항암제’라 불리는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치료제(CAR-T)와 같은 차세대 면역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분야를 더욱 탐구하고 경험을 쌓아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비뇨기암, 간담도 및 췌장암, 부인과암, 육종, 희귀암 **하혜림** 교수

하혜림 교수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2010년에 졸업하고 10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전문 진료 분야는 비뇨기암, 간담도 및 췌장암, 부인과암, 지방·근육·신경·인대·혈관·림프관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육종, 희귀암이다.

하혜림 교수는 늘 ‘진료의 기본을 잘 지키자’고 생각한다. 올바르게 진단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을 앞둔 방광암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항암치료를 하기 전 암이 빠로 전이된 것을 확인했다.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니 매우 놀라고 당황했다. 하지만 잘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한 덕분에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회복했다. 환자와 가족이 무척 기뻐해서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하혜림 교수는 암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기 건강검진을 하라고 조언한다.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병을 발견하면 좀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더 많은 치료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면역력을 높인다거나 암을 치료한다고 알려진 건강보조제나 건강식품은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암 발병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을 삼가는 것이 낫다.” 이어 하 교수는 인천 지역에 특히 고령 암환자가 많이라며 각 환자께 맞는 최선의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옳은 치료, 최적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신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 혈액암, 조혈모세포이식, 폐암 **김진철** 교수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진철 교수는 림프종, 백혈병, 골수종 등을 포함한 혈액암, 혈액질환 및 폐암 진료를 주로 담당한다. 백혈구나 림프절, 골수 등에 발생하는 혈액암은 신체 장기에 생기는 고형 암과 달리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특징이 있다. 혈액 내에 악성종양세포가 있으면 체내 세포들이 정상 기능을 못해 다양한 신체질환 등이 발생한다. 혈액암과 같은 혈액질환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바이러스 감염, 화학물질

에 대한 직업적 노출, 유전적 요인, 흡연, 방사선 조사, 항암제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교수는 환자가 지닌 질환과 항암치료 후 경과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항암치료는 의료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암치료가 힘들더라도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가 손을 잡고 한걸음씩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김진철 교수는 질병 관련 웹사이트 및 환우회 커뮤니티 등에 만연한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폐암, 혈액암과 같은 정밀한 암종은 유전자 이상 등 개인 요소에 따라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가 개인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데, 환자와 보호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과와 협진해 환자께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해 시행한다. 따라서 비슷한 암으로 투병 중인 지인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를 참고하기보다 의료진과 긴밀하게 대화해 치료 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있다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항암치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최신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아픔과 괴로움을 최대한 공감하고 함께 치료하는 의료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혈액질환, 완화의료 및 희귀 고형암 **박지선** 교수



호스피스라고도 불리는 ‘완화의료’는 최근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료 분야다. 완화의료는 환자의 암 진단 초기부터 항암치료 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조절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박지선 교수는 혈액질환 및 고형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전문으로 진료한다.

“보통 암을 치료할 때는 조직 및 골수 검사, 영상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반면 완화의료는 환자의 나이, 질병의 진행 정도, 치료 수행 상태, 신체 및 심리 상태, 환자를 돌볼 가족의 상태까지 고려한다. 최근 암 진단이 예전보다 세분화되고 정밀해져 환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가능한데다 면역치료를 포함한 새로운 약제도 많이 나와 환자에 따른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암환자와 가족은 치료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모든 환자가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담당 의료진으로서 이에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지선 교수 역시 암환자와 가족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환자와 가족이 상업적 목적으로 작성된 홍보용 문구에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드라마틱한 체력 증진이나 항암효과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간이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항암제와 충돌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박 교수는 병원에서 교육하는 영양정보를 이용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했다.

“의료 환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진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환자가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컬러풀 옥수수 디저트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세상에 내어주는 간식, 바로 옥수수다.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입맛을 잃기 쉽지만 간단하면서도 색다른 옥수수 요리는 맛은 물론 눈까지 즐겁게 해준다. 옥수수 버터구이와 옥수수샐러드로 단짠단짠의 맛과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알갱이의 씹는 맛을 즐겨보자.



## 옥수수버터구이

**재료(2인 기준)** 옥수수 3개, 그라노파다노 치즈 약간  
**버터믹스** 버터 5T, 올리브유 3T, 소금 2T, 간 마늘 3T, 설탕 3T, 파프리카시즈닝 3, 타임 2줄기, 후추

**만들기** ❶ 옥수수는 깨끗이 씻어 찜기 또는 전자레인지에 이용해 15분간 찌내 식힌다. ❷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살짝 녹이고 나머지 재료를 섞어 버터믹스를 만든 후 찌낸 옥수수에 바른다. ❸ 옥수수를 오븐 또는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운 후 그라노파다노치즈를 뿌려낸다.

## 옥수수샐러드

**재료(2인 기준)** 옥수수 3개, 양상추 3장, 다진 양파 1개, 다진 오이 1/2개, 올리브유, 소금, 후춧가루

**샐러드드레싱** 화이트식초 10T, 바질 9잎, 올리브유 3, 설탕 2T, 올리브고당 100g, 파프리카시즈닝 3, 소금, 후추

**만들기** ❶ 옥수수는 깨끗이 씻어 찜기 또는 전자레인지에 이용해 15분간 찌내 식힌다. ❷ 숟가락 등으로 옥수수 알을 긁어 준비한다. ❸ 드레싱은 분량대로 섞어 준비하고, 양상추, 토마토는 씻어 한입 크기로 손질해 담는다. ❹ 그릇에 준비한 재료를 모두 담고 드레싱을 뿌린다.



## 자유를 그리는 마음 크레타섬에서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곳이다. 에게해와 지중해에 걸쳐 있는 그리스의 크고 작은 섬들은 6월이 채 되기도 전에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여행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섬을 뒤덮은 찬란하고 강렬한 햇빛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계절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여름의 햇빛은 어제와 같은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리스의 햇빛마저 빼앗아갈지 모른다. 하루빨리 어제와 같은 일상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당신의 눈과 마음에 그리스의 아름다운 햇빛을 선물한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유럽 최남단 섬, 크레타섬으로 간다.

1— 크레타섬 여행의 시작,  
이라클리온 도시 전경

**여행작가 추효정**은 월간 <바안다 이닝>에서 여행과 음식, 문화를 아우르는 피쳐에디터로 일했으며, 오랜 시간 세계를 떠돌며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글을 썼다. 현재 잡지와 신문, 사보 등 여러 매체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의 삶을 다룬 인터뷰 책 <비로소, 나는 행복합니다>를 펴냈다.



2— 히피족이 거주했던 고대 동굴

**그곳에서 나는 자유다**

‘크레타’라는 섬 이름을 처음 접한 건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서였다. 그리스 섬 하면 산토리니나 미코노스가 여행지로 유명하다 보니 크레타섬은 여행지보다 소설 속 배경지로 먼저 친숙한 장소다. 젊은 지식인 ‘나’가 크레타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던 중에 60대 노인 ‘조르바’를 만나면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소설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크레타섬 이라클리오에서 나고 자랐다. 그의 문학세계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온 전 세계 여행자들은 그의 숨결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이라클리오를 찾는다. 카잔차키스의 묘비가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클리오 도심에서 남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카잔차키스를 마주했다. 야트막한 언덕 꼭대기에 펼쳐진 묘 주변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컷가를 때리던 차량의 소음이 순식간에 종적을 감췄다. 새파란 하늘 아래 야자수가 위용을 과시하고, 장식 하나 없이 반듯하게 드러누운 네모난 무덤과 그 앞에 꽃힌 나무 십자가가 조화를 이루며 여행자를 반긴다. 대문호의 묘라고 하기엔 소박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이 풍경과 닮았으리라 짐작해본다.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운이 좋게도 카잔차키스와 여행자 둘뿐이다. 살아생전 영혼의 자유로움을 갈망하며 전 세계를 방랑한 카잔차키스, 새로운 자유를 탐하며 그의 땅을 찾은 여행자, 인간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일까? 그가 생전에 미리 써놓았다는 세 줄의 묘비명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카잔차키스를 뒤로 하고 섬의 동쪽을 향해 내달리는 길, 여행의 시작이 좋다. 그를 추종하는 어느 유명작가는 그의 묘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주저앉아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 정도까지의 감동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고 나니 그곳에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낼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봤자 여행에서 충분한 시간이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기준도 불분명할 뿐이다. 그의 무덤을 내리쬐 햇빛이 무척 아름답고 투명했던 그 기억만 오래도록 간직하면 된다. 살아가는 행위도 그럴 것이다.

**산맥을 넘어 넘어 무인도로**

섬의 동북쪽 엘론다로 향하기 전 네아폴리 마을에 잠시 정차했다. 크레타섬의 주요산업인 올리브 농업을 직접 보기 위해서다. 마을 전체가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네아폴리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은 섬의 농업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마을의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2킬로미터 떨어진 바실라카이스(Vassilakis Estate) 올리브 농장을 구글 지도에서 찾았다. 바실라카이스 가족이 세대에 걸쳐 경영하는 이 올리브농장은 1865년 마을 최초의 올리브 생산 업체로 문을 열었다. 가족의 일원임을 밝힌 직원이 여행자를 위해 투어가이드를 자처했고,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농장의 제품과 공장 시설을 두루 소개해줬다. 오랜 세월 전통 재배와 수확 방식을 고수해온 이곳의 올리브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섬의 햇빛과 바람, 공기를 머금고 열매를 맺는다. 올리브 한 알에 섬의 자연이 모두 담겨 있다.

네아폴리에서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택했다. 크레타섬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인데, 동에서 서까지 260킬로미터에 이르지만 남북으로 그 폭은 60킬로미터 정도다. 산지가 많은 이 섬은 동에서 서로 높은 산맥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고, 그 길을 제대로 보려면 구불구불 이어진 국도를 달리는 게 여행의 묘미를 배가한다. 과연 그랬다. 국도를 달리는 동안 차창 너머로 보는 풍경에 만족할 수 없어 몇 번이고 차를 세워 섬을 내려다보아야 했다. 보고 또 보아도 섬은 다양한 얼굴을 한 채 여행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몇 번의 산맥을 오르고 올라 어느새 파랗게 물든 해안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3-6- 섬의 서쪽 반도 끝에서 찾은 동굴과 예배당  
4- 1960년대 전 세계 히피들의 집성지였던 마탈라  
5- 유럽에서 가장 큰 자연 야자 숲이 있는 바이 비치  
7-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  
8- 히피족이 거주했던 고대 동굴



9 — 섬의 서쪽으로 가는 길  
10 — 핑크색 모래로 물든 엘라포니시 해변



엘룬다는 7개의 마을과 무인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의 무인도 지역인 칼리돈반도가 이날의 최종목적지다. 올리우스 요새에서 좁다랗게 이어진 길이 칼리돈반도와 닿는다. 길이 보기보다 너무 협소해서 차량 양옆으로 바닷물이 닿을 듯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칼리돈에는 다수의 교회와 수도원, 해변만이 자리한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1834년 기독교 사회인 그리스에서 무슬림 가족이 들어와 터를 닦고 살았던 장소이며, 1903년부터 한센병자 식민지로 사용되었다. 수백 명의 한센병자가 이곳에서 살다가 죽었고, 1957년 7월이 되어서야 마지막 남은 희생자들이 아테네 근처 병원으로 이주하면서 한센병자 식민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났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 이제는 관광지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사람의 때가 타지 않은, 나만 간직하고 싶은 이곳 해변에서 여행자들은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마주한다.

### 전 세계 히피들의 집성지

하루 새 날씨가 급변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어제의 청명한 하늘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해가 흰히 밝아올 아침인데도 어둑어둑한 새벽의 어운이 길다. 금방이라도 비가 흠뻑될 것 같은 날씨를 배경으로 바이 비치로 향한다. 칼리돈에서 약 100킬로미터 거리, 점점 더 스산해지는 날씨 속에 섬의 끝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인가 의심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바이 비치는 비구름에 강풍까지 합세해 야자 숲이 거대한 유령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바이 비치는 '야자 해변'이라 불리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자연 야자 숲이 특징이다. 1970년대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 크레타섬에 온 영국인 히피들이 처음 바이 비치를 발견하면서 대중화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 이곳의 유명세를 듣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배낭여행자들로 혼잡한 무질서가 이어졌고, 마침내 쓰레기처리로 골치를 앓다 폐쇄 조치된 바이 비치는 그리스 정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 현재에 이른다. 사실 유럽 히피들이 바이 비치를 새로이 발견하고 또 몰려든 건 마탈라를 떠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바이 비치 이전 전 세계 히피들의 집성지라 불렸던 곳, 1960년대 마탈라에서 히피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섬의 동쪽 끝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마탈라로 이동했다. 날씨는 또다시 바뀌어 청명한 하늘과 함께다. 섬의 중남부에 위치한 마탈라는 히피들이 찾기 전 평범한 어촌마을이었다. 해변 한쪽에는 암벽이 있는 거대한 모래사장이 이어지고, 푸른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고대 동굴이 가득하다. 이 점이 히피들을 자극했다. 동굴은 히피족이 점령해 그들의 집으로 변모했고, 지금도 동굴에서 살아가는 히피족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그 당시 히피족으로 몸살을 앓던 이 마을은 그리스 정교회와 군대가 힘을 합쳐 히피족을 모두 내쫓으며 평화를 맞았다. 골칫덩어리에 지나지 않던 히피문화가 현재는 이곳의 관광산업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이러니한 역사다.

### 핑크색 모래로 물든 해변

마지막 여정은 섬의 서쪽으로 간다. 여행 첫날 이라클리오에서 만난 한 여행자가 강력 추천했던 곳, 엘라포니시가 목적지다. 지도상에 섬의 서남쪽 모퉁이 근처에 반도처럼 타원형을 한 아주 작은 섬이 있다. 엘라포니시는 핑크색 모래로 물든 독특한 해변을 볼 수 있어 유명인데, 지구상에서 핑크색 모래가 발견되는 해변이 흔치 않아서다. 죽은 산호초와 공생관계인 색소 미생물과 파도에 부서진 조개 조각 등의 퇴적물이 쌓인 결과로 핑크색 모래가 생겨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날씨가 좋으면 얇은 물을 통해 엘라포니시 해변에서 반도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반도 끝까지 산책이 가능하다. 광활하게 펼쳐진 하얀 모래사막 너머에서 예배당과 동굴을 차례대로 만났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 지중해를 저 멀리 바라보며 이제야 섬의 서쪽 끝에 당도했다는 사실에 기뻐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순간이 조르바가 품어온 하루하루의 풍경이 아니었을까.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조르바는 말했고, 카잔차키스는 그렇게 문장을 완성했다.

# 친절한 인하사를 소개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보호자 여러분에게 칭찬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칭찬 직원'을 선정합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칭찬 직원 및 부서로 선정된 <친절한 인하사>을 소개합니다.

01월



조혜인(서16병동)

**칭찬합니다!** 입원기간 내내 항상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조혜인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반복되는 입·퇴원, 항암치료로 힘든 일상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상냥한 태도 덕분에 늘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첫 칭찬 주인공이 되어서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보내주시는 환자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가 떠올랐습니다. 환자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받은 상인만큼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안전한 간호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이 제가 받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숙(유방·갑상선외과센터)

**칭찬합니다!** 항상 빌 때마다 묻지 않아도 알아서 잘 설명해주시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힘이 납니다. 항암에서 수술까지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보니 암이라는 삶의 큰 장벽에 부딪힌 많은 환자를 더 따뜻하게, 내 몸같이, 내 가족같이 돌보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가족같이 다가갔습니다.

02월



채주희(응급전용중환자실B)

**칭찬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천천히 설명해주고 치료에 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안심되었습니다.

03월



윤은혜(암센터)

**칭찬합니다!**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대해주시는. 항상 웃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마음 따뜻한 간호사' '능력 있는 똑똑한 간호사'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입원간호3팀(동12병동)

**칭찬합니다!** 동12병동 간호사들은 말 그대로 '백의천사(白衣天使)'처럼 근무하십니다.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12병동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모두를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시기에 직원들이라도 좀 더 기운을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일한 결과 칭찬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밝은 기운과 희망찬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동12병동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인하, 사람

## 당신의 건강을 귀하게

인하대병원은 산처럼 우직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얻었다

어느 때보다 감염병 예방이 절실한 요즘, 계절은 2020년 여름이지만 마음은 올 초 겨울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쉽게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 탓에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감염관리실 사람들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하대병원의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1996년 감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인하대병원의 감염 관리가 시작됐다. 2003년 감염전담 간호사가 생기고, 2006년 감염관리실 조직이 신설되었다. 이후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 지침서 발행 및 개정, 감염관리 및 항생제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JCI 및 의료기관평가 시행,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및 2015년 메르스 방역 활동, 2017년 국가 지정음압치료병상 개소 및 운영,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사업을 운영하며 병원 내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감염관리전담 의사 5명, 감염관리전담 간호사 8명 등 총 13명의 인력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원내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관리실의 역할은 빛을 발한다. 감염관리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즉각 대응하고 있다. 대응 지침 및 규정 마련, 관련 자문, 격리병상 및 치료 자원 확보, 직원 교육,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체계 구성, 공지사항 공유, 의료진 마스크 및 보호복과 같은 물품 전달 등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초반에는 관련 질문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병원 내 직원들의 수많은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감염관리실 김은정 팀장은 바빠서 서로 예민할 수 있는 시기지만 감염관리실의 자랑인 가족 같이 끈끈한 팀워크로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왔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1월 말 이후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도 정신적,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염관리실은 푹푹 뭉쳐서 힘든 시간을 함께해왔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염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원내 감염 제로(Zero)’다. 모든 부서와 임상 현장에서 감염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 감염관리실의 역할이다. 감염관리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재, 장기전 태세로 국면을 전환하고 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은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감염병 및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감염관리실 김은정 팀장

####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염관리실 팀장으로 원외로는 시청이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국책사업 수행 등을 담당합니다. 원내에서는 감염관리실의 역할을 총괄합니다. 업무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감염성 질환의 원내교차전파 예방입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각종 감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내 다른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에게 감염성 질환이 이환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 예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이를 원내에 교육·공지하고 게시물, 안내문, 설문지 등을 수시로 변경하고 직원 문의에 답변하는 등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팀원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홍삼즙, 비타민, 두통약, 소화제 등을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동료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병원 업무가 대부분 그렇지만 감염관리 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과 이해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교육이나 경험으로는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염관리실 팀원들은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더욱 역량을 키워 환자와 직원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염관리실 서영주 간호사

#### 코로나19 종식하면 고향에 가고 싶어요

감염관리실에서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실무 담당, 신종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구 관리 및 교육 담당, 위·대장 수술 부위 감염감시, 다제내성균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CDI), 발생 감시 및 관리, 손 위생 모니터링, 실무부서 감염관리 지침 준수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이 병원 내 유행하거나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유행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실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구 수급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주에 한 번씩 물품이 들어오는데, 양도 많고 부피도 커서 감염관리실 동료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때 총무팀, 자재팀, 보안팀에서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방 수칙을 잘 지켜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고향이 전남인데 설날 이후로 부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하면 가장 먼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 감염관리실 이은영 간호사

#### 코로나19로부터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요

평소 수술부위감염감시, 혈류감염감시, 감염관리교육 업무를 하고,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도 선별진료소 기획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서 시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실행가능성을 고려해 원내지침을 만들고 손 위생이나 감염관리라운드 등 수시로 모니터링해 지침을 잘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 대구에서 확진 받고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기억납니다. 감염관리실에서도 병동 모니터링을 위해 방호복(Level D)을 입고 의료진과 함께 확진자 병동에서 환자를 대면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용하는 대구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어요. 때마침 식사 중이시던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밥 차려드리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셨답니다. 지금은 다행히 호전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인하대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일반 환자와 호흡기 증상 환자를 철저히 분리해 진료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하셔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절차가 여러 가지여서 검사나 시간 지연 등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을 믿고 방문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모두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 감염관리실 이유란 간호사

#### 사람으로 힘을 내는 감염관리실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성인 ICU 감염감시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지표관리, MBP 지표관리,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보고, Clean ICU 회의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감염감시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안에서 항상 정확한 감염감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소 이루어지는 여러 모니터링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유행 발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관리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의 도움과 협조로 감염관리에 큰 도움을 얻었을 때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작년에 ICU 각 부서에서 간호사 선생님 한 분씩 모시고, ICLN(Infection Control Link Nurse, 중환자실 감염감시 링크간호사) 활동을 진행했는데, ICU 간호업무와 더불어 여러 개선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요즘 인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늦은 밤 새로운 확진 환자를 연일 돌보는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희를 이해하고 도와주신 병동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덕분에 감염관리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 활동으로 몸과 마음 모두 지치고 힘들 텐데도 언제나 대응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감염관리실 박서희 간호사

#### 신뢰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주된 업무는 신생아중환자실 내의 전반 감염 부분을 감시 및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개선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주기적인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회의 및 의료진 대상 감염관리교육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 신고업무를 급별 감염병 진단 및 신고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전담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 의사선생님들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원내 발생하는 감염 추이를 파악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 및 감시 분야를 보다 예민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하룻밤에 몇 명씩 입원하는 날도 있어요. 감염관리실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원활한 병상 조율과 지침 안내를 위해 밤 또는 주말, 공휴일에도 당직을 시행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밤 12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달을 보면서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함께 웃던 기억도 벌써 과거가 되었네요. 감염관리실은 병원 전반의 감염을 감시하는 부서입니다. 감염관리실에서 감시하는 업무는 특정 부서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부서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지면을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관리실 박소연 간호사

####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꽃은 피어납니다

담당 업무는 직원감염과 다제내성균 VRE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바쁘고 힘들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연이은 야근과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날을 보내면서 늦은 밤 저녁으로 배달음식을 시켰던 일이 기억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가 처음 난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 기사님이 확진자를 염려해 배송을 꺼려하자 식당 사장님이 직접 차로 배달해주셔서 늦은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었어요. 또 회의가 잦아 보니 다과용 음료를 주문했는데 배달 기사님이 병원 입구 대로변에 두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슬비 내리던 늦은 밤, 가까스로 음료를 발견하곤 한참을 웃었어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인하대병원은 언제나 환자와 직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전염되지 않는 감염병입니다. 해외 매체에서 ‘내가 확진자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을 봤습니다. 내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조심해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 유타대학병원 · GCF와 화상회의의 열다

최근 인하대병원은 미국 유타대학병원, 녹색기후기금(GCF)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모두 코로나19와 관련해 진행된 일이다. 화상회의의 당시 상황을 들어보자.

## 유타대학병원에 코로나19 관련 자문 제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미국 유타대학병원이 인하대병원에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및 치료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유타대의 학장이자 유타 헬스시스템 CEO인 마이클 굿(Michael Good) 박사의 요청에 따라 김영모 의원원장 주재로 원내 감염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미국 현지 의료진들이 원격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유타대학 관계자들은 화상회의에서 진단법, 장비 수급 방안, 현장 치료법, 격리 외래 운영 방안, 감염 우려 속 수술 시스템 등 기초 부분부터 심층 영역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자문에 참석한 남정현 진단검사의학과장, 백지현 감염관리부실장, 김아름 국제진료센터장 등 인하대병원 의료진은 과거부터 축적해온 감염증 대응 데이터와 3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제시했다.

유타대학병원은 '포브스(Forbes)'와 'US News & World Report'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권에 선정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기관이다. 국내 여러 병원과 소통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하대병원에 코로나19(COVID-19)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인하대병원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거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감염 대응 프로토콜을 갖추었음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녹색기후기금(GCF)의 감사인사와 기부금 전달

이외에도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최근 국제기구와 해외 소재 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기후기금(GCF)이 코로나19(COVID-19) 관련 의료지원에 대한 감사인사와 GCF의 자발적 기부금을 전달했다.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아름 센터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관련자가 코로나19(COVID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GCF 직원에게 자가격리조치를 권하고 지침을 전달했다. GCF는 김아름 센터장의 조언을 통해 빠르게 지침을 세워 직원들에게 전파했고, 이에 따라 조직 내 감염 확산을 크게 줄였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던 GCF 직원 2명은 완치해 퇴원했다. 더불어 GCF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둔만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인하대병원에 약 2천 700만 원을 기부했다.

인하대병원과 GCF는 화상회의를 열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기부금 사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부 성금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중증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장비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이동식 인공호흡기 등을 빠른 시일 내 구입해 감염증 발생 시 지역주민 치료에 사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외부 고객의 동의를 얻어 게시하였습니다.

## 어버이날 맞이 '고객 섬김 활동' 카네이션에 담은 진심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입원 중인 70세 이상 환자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이는 곧 고객을 섬기는 인하대병원의 마음이다.

###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마음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종료되었지만, 계속되는 생활방역 활동으로 지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도 부담이다. 이런 시기에 병원에 입원해 가족과 떨어져 투병 중인 환자의 마음은 어떨까.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속에서 입원 중인 70세 이상 환자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전하며 고객을 섬기는 마음을 전달했다.

특히, 김영모 병원장은 암 진단 후 투병 중인 김O규(M/76) 환자를 직접 찾아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김O규 환자는 앞으로 진행될 치료 과정과 병원의 낮은 환경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병원장과 임직원의 격려와 응원에 한결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마워했다.

### 카네이션에 담은 진심 어린 정성, 환자 섬김의 시작

'고객 섬김 활동'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입원, 외래 환자는 물론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인하대병원 전통 행사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따라 70세 이상 입원환자 280여 명을 한정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다소 축소된 행사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꽃을 받은 환자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환자 치료에 매진하면서도 행사에 동참해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인하대병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진심 어린 정성을 전달하며, 고객 섬김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다.

##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⑧ 약제내성결핵

약제내성결핵은 한 가지 이상의 결핵 치료약제에 내성균을 배출하는 상태를 말한다. 약제내성결핵이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 약제내성결핵은 어떤 의미인가요?

약제내성결핵은 한 가지 이상의 결핵 치료약제에 내성균을 배출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결핵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가 갖는 내성을 일차 내성이라고 하고, 치료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내성을 획득내성이라고 합니다.

### 약제내성결핵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결핵 치료약제의 내성은 환자가 결핵 치료약제를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거나 조기에 중단하는 등 약제를 오남용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약제내성결핵 발생 고위험군은 결핵 치료약제를 처방대로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환자, 처방된 결핵 치료약제를 모두 복용하지 않는 환자, 과거 결핵약을 복용 후 활동성 결핵이 재발한 환자 등입니다.

### 약제내성결핵의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처방된 모든 약제를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알을 빠뜨리고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약 복용 중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기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미리 의사에게 여행이 가능한지 상담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병원, 교정시설, 노숙인 쉼터 등과 같은 폐쇄되거나 집단수용시설의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다제내성 결핵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결핵 환자가 증상이 좋아 지거나 귀찮다고 해서 약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마음대로 복용을 중단하면 내성균을 만들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 약국

용현동	약손약국	032-884-1886
주안동	라성약국	032-831-6065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032-875-0509
주안동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용현5동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송현동	백제약국	032-764-5747
송림동	종로약국	032-766-9301
	보명약국	032-762-3347
구래동	김포도담약국	031-987-5936
선학동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연수동	연수태평양약국	032-818-7010
옥련동	온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동의당약국	032-834-8274
송도동	신도시약국	032-851-7516
용중동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작전동	우리팜약국	032-551-7535
작전동	유원약국	032-551-5650
항동7가	유한온누리약국	032-883-2600
운서동	영종태평양약국	032-746-1313
구월1동	이레약국	032-462-1851
구월동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구월4동	연세프라자약국	032-462-0392
부평6동	행복한온누리약국	032-503-9339
	유태마부평성모	032-505-2035
가좌동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한 협력 약국은 032-890-3323, 33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4



주치의: 산부인과 최수란 교수  
언론사: 기호일보  
주 제: 중국서 왔다고 병원마다 난색... 인하대병원 배려로 순산

2020. 2. 20



센터장: 정형외과 권대규 교수  
언론사: 인천투데이  
주 제: 의료기기 모니터링 통해 환자 '안전 환경' 구축

2020. 3. 4



인터뷰: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  
언론사: 기호일보  
주 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가 답이다"

2020. 3. 18



센터장: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희귀질환센터 "서울 가지 않아도 양질의 치료"

2020. 3. 23



참여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 간호사들  
언론사: 인천일보  
주 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간호사들

2020. 3. 31



참여자: 영양팀  
언론사: 중부일보  
주 제: 직원식당 안전칸막이 설치 원내감염 '제로' 한몫

2020. 4. 6



참여자: 감염관리실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인하대병원 의료진분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 인천 온세미로 지역아동센터 그림 현수막 기증

2020. 4. 8



관련자: 국제진료센터 김아름 센터장  
언론사: 연합뉴스  
주 제: "감사합니다" 녹색기후기금, 인하대병원에 감사 편지

2020. 4. 9



관련자: 김영모 의료원장  
언론사: 조선일보  
주 제: "한국 병원에서 도와줘요" 미국 유타대병원의 SOS

2020. 5. 7



기고자: 외과 박근명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25년간 혈액투석 50대, 신장이식 받고 새 삶

## 1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로 지정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관리 운영하는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산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심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치료한다.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는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응급실 감염과 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 관리와 진료 능력 등이 우수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지정됐다.

## 2 SCM 생명과학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은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SCM 생명과학'과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 대상 치료목적 임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 승인 절차를 밟고,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임상이 진행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의료서비스 데이터 활성화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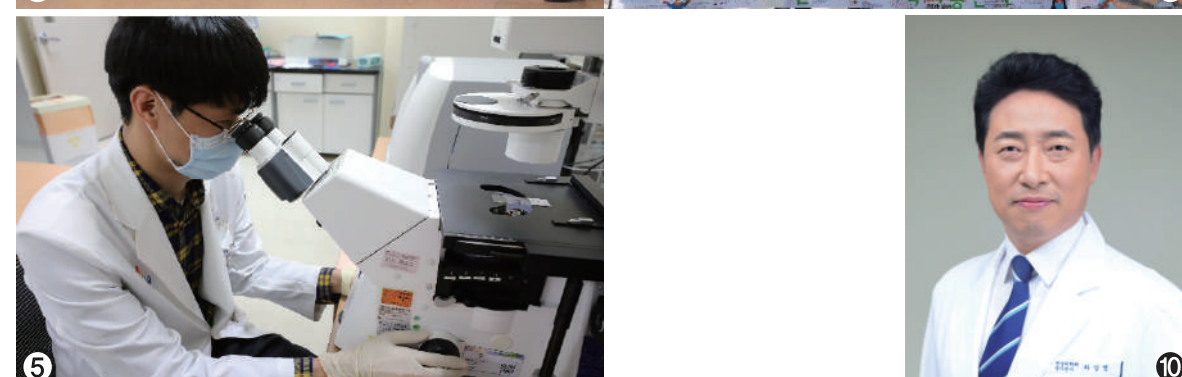
인하대병원과 (주)해셀, 한진정보통신(주)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및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취약군에 대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시대 장기간 가능성을 대비해 두 기업과 개인주도형 의료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인하대병원은 해셀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 후 거동이 어렵거나 감염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본 뒤 해외 의료진출 과정에서도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4 경인 지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센터' 신설

인하대병원이 경인 지역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센터(대변세균이식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통해 장내세균과 연관된 다양한 질환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된 각종 질환의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임상에 응용하는 것이 센터 설립의 목적이다.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 있는 원내 연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장내세균의 분석 및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5 인천시와 바이오헬스 인재 육성

인하대병원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바이오헬스 사업의 주요 과제인 '혁신형 의사 과학자 공동 연구사업'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하대병원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의사 과학자 공동 연구사업에 지원해 경기인천권역에서 유일하게 연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혁신형 의사 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임상인들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롯한 의료기술 분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여려는 목적이다.



## 6 직원식당 안전 칸막이 설치

인하대병원이 직원식당 테이블마다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고 운영한 지 4주 차에 들어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집단급식소 개선 권장안이 나오기 전 이뤄진 선제조치로 코로나19의 의료기관 원내감염 방지에 한몫을 하고 있다. 테이블 안전 칸막이는 코로나19의 식사 중 비말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식당을 시작으로 접수 및 수납 공간, 외래 상담 공간, 회의실 등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곳에 지속적으로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7 의료기기 모니터링 통해 '환자 안전' 환경 구축

인하대병원이 의료기기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 중이다. 인하대병원은 인천권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의료현장에서 기기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천권역 모니터링 센터인 인하대병원을 거쳐 식약처에 보고된다. 모니터링센터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례 공유와 개선방향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 최우수 모니터링센터로 선정되었다.

## 8 미국 유타대병원, 인하대병원에 화상회의 통한 자문요청

인하대병원은 미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중 하나인 유타대병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했다. 유타대학 관계자들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진단법, 장비 수급 방안, 혈장 치료법, 격리 외래 운영방안, 감염 우려 속 수술 시스템 등 기초 부분부터 심층 영역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인하대병원 의료진은 과거부터 축적해온 감염 중 대응 데이터와 3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

나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공유 제시했다.

## 9 인하대병원에 도착한 특별한 선물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인천 온새미로지역아동센터에서 가로 5m, 세로 1m 규격의 그림 현수막을 전달한 것. 현수막은 '아름다운 당신,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양 끝부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여백에는 20여 명의 센터 아이들이 빼곡히 적어 넣은 응원 글귀가 채웠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특별한 선물에 의료진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현수막은 직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

## 10 차상영 방사선사, 방사선사협회 인천시회 회장 취임

차상영 인하대병원 방사선사가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회장직 임기는 3년이다. 앞으로 차 방사선사는 인천 지역 방사선사의 학술연구와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신임 회장에 오른 차상영 방사선사는 "의료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향상에 따라 전문 방사선사로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 시스템을 육성해야 한다. 회원들이 최상의 의료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에 힘쓰고, 동시에 직무 보호와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료 안내 (2020년 6월 10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권해윤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김아름	일본내과	
	나정호	뇌신경질환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신경과 NRNN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해외연수 2019.9.1 ~ 2020.8.31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NN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졸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B)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CB)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성하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 과	허윤석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후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해외연수 2019.8.1 ~ 2020.7.31	
방사선종양학과 ☎3070	이승윤	관절염	
	김우철	연구연 2020.4.1~2020.9.30	
	김현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비뇨의학과 ☎2360	윤상민	중앙, 결석, 신이식	
	이택	전립선, 중앙,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산부인과 ☎2270, 2117	정두용	비뇨기 중앙, 결석, 전립 질환	
	김동호	중앙학, 복강경	
	이병익	중앙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중앙학, 복강경	
성형외과 ☎3870	최수안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이명현	중앙학, 복강경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신경외과 ☎3870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목재건술, 미용수술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기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이주영	해외연수 2020.2.20 ~ 2021.2.19
	김수진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소화기내과 ☎2224	박지선	소아청소년 내분비학, 소아 성조숙 및 저신장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도행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신경과 ☎3860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신중범	위· 대장질환, 소화관 암, 소장질환, 영종성장질환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해외연수 2019.9.1 ~ 2020.8.31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 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률	파킨슨병, 손떨림, 소뇌실조, 근긴장이상증, 헌팅턴병, 기타 이상 운동 질환,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 뇌전증(간질) 질환, 수면질환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졸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신경외과 ☎2370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내과 ☎2229	김기표	신장이식
	황선덕	신장이식
신장이식 클리닉 (KTC)	NHKT	
	GSKT	
심뇌재활센터(RMCR) ☎2480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장염,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심혈관센터 (CVC) ☎2200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신성희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박상돈	해외연수 2019.8.7 ~ 2020.8.6
	백용수	부장염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인과 ☎2400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안과 ☎2400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김나래	해외연수 2020.3.1 ~ 2021.2.28	
	정지원	백내장, 각막, 외안부, 백내장 수술	
안과레이저 알레르기내과 ☎2217	김요셉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정소연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영상의학과 ☎2740-3	김철우	EVL 레이저클리닉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전운선	중재적 영상의학	
	김우철	유방방사선학	
	신석환	소화기외과, 위암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최유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외과 ☎2250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박근영	혈관이식외과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심유석	유방외과	
	최윤석	위장관 외과	
	박신영	유방외과, 유방암, 유방질환	
	강지희	혈관외과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임성묵	유방외과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박신영	유방, 내분비외과	
	기세휘	유방성형, 유방재건	
이비인후과 ☎2420-1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김영효	알레르기비염, 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최정석	타액선 내시경술, 갑상선 및 두경부 중앙,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성대) 질환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 보청기	
	김지연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중앙,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임상약리학과 ☎1167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조상헌	임상약리/약동분석
	재활의학과 ☎2480-1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정신건강의학과 ☎3880	박찬혁	뇌신경재활, 일반재활	
	김은석	근골격계질환, 허리통증, 목과 어깨 통증, 무릎통증	
	이정심	ADHD 틱장애, 학습 주의력 장애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맹세리	성인, 소아 정신건강	
	손지성	소아청소년정신과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정형외과 ☎2380	강준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중앙, 골다공증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정형외과 ☎2380	이동주	상지, 수부, 중앙, 관절염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외상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직업환경의학과 ☎2861	전유상	어깨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류동진	슬관절(무릎), 무릎 스포츠 손상(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교정 절골술, 하지 외상
	임종환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압제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보건관리
척추센터 (SCC) ☎2619	김환철	뇌, 심혈관질환 평가 및 관리,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이상윤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평가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치과 ☎2470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중앙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중앙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통증센터 ☎3921	조현영	구강외과
	최진호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클리닉
	최지영	교정과
	김소현	통합치과학과
폐암센터 ☎3890	김병건	통증치료
	김나은	통증치료
피부과 ☎2230	류정선	폐중앙,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남해성	폐중앙,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윤용한	폐중앙
	김영삼	폐중앙
핵의학 ☎3160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백 반증, 기타자극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흉조
	변지원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 전반적인질환
	신현대	유전성피부질환, 소아피부질환, 항암제 피부부작용
혈관외과 ☎2166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박근영	혈관이식외과
	강지희	혈관이식외과
혈액중양내과 ☎2199	백민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숙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이문택	혈액학, 중앙학, 골수이식, 완화의료
	임주한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호흡기내과 ☎2216, 2217	조진현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하해림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박지선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김진철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호흡기내과 ☎2216, 2217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류정선	호흡기질환, 폐중앙, 만성폐질환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흉부외과 ☎2280	김정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박미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백민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흉부외과 ☎2280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윤용한	폐, 중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김영삼	폐, 중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희귀유전 질환센터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김수진	류코다당증, 누닌중후군, 프리다-월리중후군, 안젤만중후군, 터너중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최석진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진단검사의학과	정한영	발달지연, 근육병, 뇌성마비
	문연숙	세포유전

• 대표전화 1600 - 8114 (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 890 - 2000 • 가정간호사업실 (032) 890 - 3590  
• 종합검진센터 (032) 890 - 3331 • 암통합지원센터 (032) 890 - 3600 • 진료협력센터 (032) 890 - 3302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소화기내과	신용운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최윤석 위장관 외과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외과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이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이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위암, 식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대장암	소화기내과	신용운 대장암, 위암, 역류성 식도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외과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대장항문질환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이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연구연 2020.4.1~2020.9.30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간암	소화기내과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 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외과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종양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연구연 2020.4.1~2020.9.30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췌담도암	소화기내과	이돈행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암, 폐결절,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폐암, 유방암, 부인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담도암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병리과	김루시아 폐병리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박지선 혈액암, 혈액질환, 완화의료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추종양
	병리과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내분비내과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갑상선종양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외과	이진욱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로봇수술, 구강내시경 수술, 유방 양성질환
이비인후과	최정석 갑상선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혈액종양내과	이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핵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이진욱 연구연 2020.4.1~2020.9.30
유방암	외과	임성목 유방외과 박진영 유방암, 유방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병리과	박인서 유방병리
신부인과	김동호 자궁경부암, 난소 종양, 자궁체부암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이병현 부인종양학(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외 신부인과 종양	
	부인암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이주한 부인암,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병리과	최석진 신부인과병리
	비뇨의학과	윤상민 종양, 결석 이택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종양, 소아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신이식,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암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이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이비인후과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성형외과	기세휘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두경부암	혈액종양내과	이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위암, 식도암 조진현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폐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병리과	박인서 두경부병리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재활의학과	김명욱 암재활 - 림프부종
피부암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피부암, 희귀암, 유방암, 부인암 이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뇌척추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박현선 사이베나이프 - 뇌종양, 뇌전야, 두경부암, 두개기저부 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혈액종양내과	이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야, 척추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병리과	박인서 병리학
	정형외과	김준수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근골격종양	혈액종양내과	이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 내 손안의 스마트병원

## 인하대병원 모바일앱

# My인하

# OPEN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 진료예약**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예약 가능
- 진료비결제**  
대기없이 간편하게 병원비 결제
- 진료대기순서**  
대기 순서 알림으로 기다림 없이 진료
- 진료예약조회**  
예약한 진료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내일정**  
병원스케줄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실손보험청구**  
복잡한 신청서류 없이 실손보험 즉시 청구
- 전자처방전달**  
종이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전자처방 전달
- 건강수첩**  
기본적인 건강관리 (혈압, 혈당, 체질량)

※개선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